

주간기도정보

2024. 7. 2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교원임용권·고교학점제는 기독교 건학이념 침해한다’

사단법인미션네트워크 ‘2024 사학미션 포럼’ 개최



종교계 사립학교가 건학이념 구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독교사학은 힘을 합쳐 대응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교육의 파행을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500여 미선사학법인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7일 서울 용산구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에서 ‘2024 사학미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기독교학교 총장 및 이사장 등 대표단 250여 명과 제22대 국회 대표단, 글로벌교육컨소시엄(CGE) 소속 미국기독교사립대학 총장 30여 명 등이 참석했다. CGE는 미국 23개 주와 6개 국가의 기독교 사립대학 총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이재훈 목사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작된 지 50년이 됐지만 오늘의 교육현실은 기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입법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반대를 넘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간절한 바람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정향시키는 화수분이 될 것 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진 교수(한동대)는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 위탁으로 인한 교원 임용의 자율성 침해와 고교학점제 실시로 인한 종교 교육의 파행을 꼽았다. 두 가지 위기 극복 방법에 따라 향후 기독교 사립학교의 향방이 달려있다는 의미에서다.

박 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 기독교사학법인 소속 82개 초·중·고등학교를 2023년 조사 결과, 기독교적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교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무려 6배 많았다고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원임용정원 대비 평균 4.1배의 교원 대상자를 개별학교에 보냈으며, 이들 중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만 있는 경우가 72.5%였고 또 정교사 임용이 259명인 것에 비해, 기간제 교사 임용은 1,534명으로 6배 많았다고 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1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사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교수는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존립의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시도 교육감이 직접 사학 운영에 개입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이라며 “교원 임용은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그 정체성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개정안은 종교계 사학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교계 안팎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국민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로새서 1:28-29)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시편 2:10-11)

하나님,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고자 설립된 기독교들이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해 건학이념을 침해당하고 신앙교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위기를 맞이한 상황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함께 깨어 일어나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의지함으로 힘을 다하여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사립학교법이 건학이념을 침해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기독교 학교를 섬기는 교원들과 교회가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생명을 다하게 하소서. 세상은 점점 경건한 자들을 향해 법과 권세로 위협하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 위정자들이 교훈을 얻고 주님 앞에 겸손케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이니라”

남한 영화 유포했다고 공개처형·흰 웨딩드레스는 ‘반동’ 딱지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8년…북, 민생행보 나열하며 우상화



“2022년 황해남도 ○○군의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보았습니다. (처벌 대상자는)농장원으로 나이는 22세였습니다. 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농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고 읊었습니다. 그런데 심문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2023년 탈북 남성)

북한에서 남한 대중문화 유포자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공개처형했다는 탈북민 증언이 통일부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수록됐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측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도입해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작년에 탈북한 여성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강연 영상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영상 속 해설자가 말하길 결혼식에서 신부의 흰색 웨딩드레스와 신랑의 신부 업어주는 ‘괴뢰(남한)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 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글라스 착용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데도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李)씨 성을 ‘이’로 쓰는 남한식 표기도 반동사상문화로 처벌 대상이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 ‘괴뢰식’ 말투를 쓰는지 검열도 수시로 벌어진다. ‘아빠’, ‘~(직함)님’, ‘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 해요체나 ‘빨리 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단속 사례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도 횡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한다. 철조망에는 전류를 흘렸다. 2021년 탈북한 한 남성은 그해 한 지역의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격리 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의 목록 요청을 수용했다가 재판도 없이 총살됐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비상방역위원회가 평안북도에 설치한 초소에서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던 차량이 사망사고를 내자 그 주민을 사형에 처한 사례도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통일부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8주년인 29일 그간의 민생행보를 나열하며 이상화에 열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날 이후부터 “절세 위인의 무한한 정의 세계를 뜨겁게 절감한 매혹과 흠모의 나날”을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위대한 향도의 손길 따라 인민은 더 밝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간다’는 제목의 기사에 김 위원장의 다양한 공개 일정을 열거하며 충성심을 고취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하루 동안 강동종합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 훈련을 지도했을 때는 경제와 안보를 모두 챙기는 “애국헌신의 세계”를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러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로마서 3:27-28)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다니엘 7:26-27)

하나님, 오로지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법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공개처형을 하거나 재판 없이 사살하여 당국에 대한 충성만을 강요하는 북한의 악행을 꾸짖어 주십시오. 김정은 정권의 탐심을 이기지 못한 억지 이상화가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임을 깨닫게 하셔서 심판이 시작될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으로 심령이 상해 있을 북한 주민들을 돌보사 복음과 기도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가 결론된 북한교회가 이들에게 성도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매 순간 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늘 백성 삼으사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 복된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청소년 자해환자 10년 새 2.3배로 늘었다…코로나 유행기 ‘급증’

질병청 2022년 퇴원손상 통계…입원환자 6-7명 중 1명은 ‘손상’ 환자



의도적으로 자해를 했다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퇴원손상 통계”에 따르면 ‘의도성 자해 환자’의 퇴원율은 청소년 연령대(13-18세)에서 64명으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 노인 52명, 19-64세 청장년 32명, 어린이(0-12세) 1명 순이었다.

퇴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질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의 수다. 청소년의 의도성 자해 환자 퇴원율은 2012년에는 28명이었던 것이 10년 사이 2.3배 가까이(128.6% 증가) 높아졌다.

특히 2020년 48명, 2021년 57명, 2022년 64명으로 코로나19 유행기에 급격하게 상승했다. 방역대책 시행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100명)이 남자 청소년(31명)보다 3.2배나 높았다. 약물 등으로 인한 중독(의도성과 비의도성 모두 포함) 환자 통계를 봐도 젊은 층에서 여성의 비중이 특히 컸다. 15-24세 연령대에서 여성의 퇴원율은 90명으로 남성(36명)의 2.5배였다.

2022년 전체 손상환자는 114만 2천 195명으로 전체 퇴원환자의 15.4%를 차지했다. 입원 생활을 한 환자 6-7명 중 1명은 손상환자인 셈이다. 환자 수는 10년 전보다 2.3%포인트 줄었지만, 암(11.7%), 소화기계통 질환(11.3%)보다 많아 질병군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은 주로 길·간선도로(남자 29.2%, 여자 24.1%)와 주거지(남자 13.2%, 여자 27.4%)에서 발생했다. 손상환자의 평균 재원(입원) 일수는 13일로 전체 입원환자(8일)보다 길었다.

한 정신건강 전문의는 ‘최근 청소년들이 자해로 인해 입원하거나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가 아주 많다’며 ‘청소년들은 자해를 통해 관심을 받거나 자해 순간 분비되는 엔도르핀으로 인해 불안한 감정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처는 내지만 자살하려는 의도가 없는 자해가 있다. 그렇지만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3분의 1이 나중에 자살 시도를 하기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며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2019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10-19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나타났다(출처: 연합뉴스, 뉴스1 종합).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 하였으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이사야 43:1,4)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요한복음 4:28-30)

하나님,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로 병원에 가는 다음세대가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주께 간구하오니 이들을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스스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참함과 곤고함 속에 고통하는 죄인의 마음의 실체를 십자가 복음으로 밝히사 원수의 종노릇을 멈추고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부모와 교회를 통해 죄인을 대신한 아들의 생명으로 구속하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신 주의 사랑이 전해져 존귀한 주의 자녀로 그 안에서 항상 승리케 하옵소서. 다음세대가 그리스도를 만나 스스로 채우려 했던 물동이를 버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발견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